

일한국제결혼가정 부모와 자녀의 언어와 정체성 — 유학경험과 이동의 경험을 지닌 가족의 사례를 통하여 —

양정선

한경옥

요지

한일국제결혼가정 부모와 자녀는 한국어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두 문화가 항상 혼재하고 있는 한일국제결혼가정 부모와 자녀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생애구술사와 언어 초상화를 통하여 명확하게 국제결혼가정이라는 환경에 살고 있는 가정의 주관적 세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학경험과 이동경험을 지닌 한일국제결혼가정 부모와 자녀의 정체성은 언어능력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아닌, 언어능력 이외에 문화적요소에 따라서도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일국제결혼가정 부모가 유학과 이동의 경험이 있어도, 자녀의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 계승은, 각가정의 상황과 부모의 가치관, 교육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한일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선택은, 부모의 유학과 이동의 경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각 가정의 상황과 부모의 교육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영주에 따라서 한일국제결혼가정 부모의 정체성은 두 문화와 언어가 공존(존중)하는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협력자의 언어 초상화를 신체부위별로 나누어서 정체성과 관련하여 분석해 보면, 머리와 심장(가슴, 마음)에 한국어와 일본어를 그려 넣어 자신의 핵(중심)이라는 것을 표현하였다. 더욱이, 팔과 손에 일본어(모국어가 아닌 생활언어)를 인생의 도구로서 위치시켰다. 또한, 다리에 자신의 모국어(일본어나 한국어)를 그린 것은 연구협력자의 초석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들어가는 말

오늘날 현대사회는 과학 문명과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문화 간, 국가 간의 선명한 경계가 사라지고 교차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흔한 현상이 되었다 (Harvey, 2009). 다언어학습자의 관점에서 언어와 정체성의 관계를 논한 논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가와카미, 2013; 스희키 2019; 이와사키, 2021;

미야케 2022 외). 유학은 예전에는 경제자원과 기회의 혜택이 있는 자가 경험하는 것이며, 인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국경을 뛰어넘는 이동성의 경험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단기 유학을 포함하여, 유학의 기회는 이전보다 증가하였고¹⁾, 여러 번 유학을 경험하는 개인도 흔한 일이 되었다. 또한, 유학에 관한 연구는 목표언어(제 2 언어)의 능력이 얼마만큼 늘었는지에 관한 논문이 많았다. 하지만, 제 2 언어를 사용하는 개인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관한 전인적인 “whole person, whole lives”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Coleman, 2013). 유학경험을 한 연구협력자는 성인형성기 (18-25 세) 라 불리우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인간형성의 발달단계를 거처왔다. Norton 은 피에르 부르디외 (Pierre Bourdieu) 의 문화자본²⁾ 의 개념을 원용하여, 학습자가 언어 학습을 하는 것을 “투자 (investment)³⁾” 라고 부르며, “문화자본⁴⁾” 을 증대함에 따라, 학습자가 이민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법을 획득해 나간다고 설명한다. 또한 제 2 언어학습을 “문화자본” 은 학습자에게 있어서 정체성으로의 “투자” 로 이어진다.

Kanno & Norton (2003) 은, 학습자가 언어 학습을 위한 “투자”의 배경에는 현재 자신만이 아닌, 장래의 자신의 모습과 생활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의 연구협력자는 유학경험을 지닌 자이며, 이동의 경험을 통해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접한 한일국제결혼가정의 부모와 자녀이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 1) (독) 일본학생지원기구가 실시한 [일본인학생유학상황조사]에 따르면, 대학 등에서 파악하고 있는 일본인학생 해외유학상황은, 2021 년도에, 10,999 명 (전년도대비 9,512 명 (639.7%) 였다. 유학생수가 많은 나라 지역은 미국 3,603 명 (전년도대비 3,360 명 증가), 한국 1,209 명 (전년도대비 944 명증가), 캐나다 1,189 명 (전년도대비 1,000 명 증가) 였다. https://www.mext.go.jp/a_menu/koutou/ryugaku/1412692_00003.html
 - 2)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가 제창한 것으로 금전에 의한 자본이 아니라, 학력, 문화적 요소, 언어, 손짓, 몸짓, 개인이 몸에 지닌 자산을 뜻한다.
 - 3) 목표 언어와 학습자의 사회적,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관계와 그 목표 언어를 배우고 실행할 때 흔히 보이는 이중적인 열망을 나타낸다. 만약 학습자들이 목표 언어에 ‘투자’ 한다면, 마침내 그들의 문화적인 자산과 사회적인 힘의 가치가 증가해서 광범위하고 상징적인 자원들 (언어, 교육, 우정) 과 물리적인 자원들 (자본재, 부동산, 돈) 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 4) 특정한 사회적 형태와 관련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특징짓는 지식, 자격, 사고 방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문화자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첫째, 한일국제결혼가정의 부모와 자녀는 한국어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둘째, 두 문화가 항상 혼재하는 한일국제결혼가정의 부모와 아이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생애사와 언어 초상화를 통하여 명확하게 국제결혼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가정의 주관적 의미세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국어(계승어) 교육, 자녀들의 국적과 이름, 부모의 국적, 부모의 한국이름, 일본이름 표기하는 방법과, 교육관은 자녀의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다.

I 조사개요

1. 연구협력자

본 연구협력자는, 한일국제결혼가정중에서도 부모(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유학경험이 있는 5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모 연구협력자의 유학경험과 이동경험은 성인 형성기(18~25세)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정체성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학과 이동의 경험을 지닌 연구협력자는 국제결혼을 통하여 두 언어와 문화가 혼재하는 삶을 살게 된다. 또한 태어난 자녀들도 같은 환경에 처하게 된다. 연구협력자의 상세한 프로파일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인티부 연구협력자에 대한 정보

	결혼 년수	체임 년수	체한 년수	만년 국가	유학경험&이동경험	아내	남편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자녀의 국적	가정에서 주 언어	귀국 횟수
E 가족	9년	14년	남편 : 1년	일본	아내: 일본교원유학 1년 일본국제교부원 5년 남편: 한국교원유학 1년	39세 석사	41세 석사 (시간강사)	4세 유치원	X	일본	한국어	1년에 1~2회
G 가족	10년	11년	아내: 2년	한국	아내: 한국유학 1년, 한국직장 1년, 남편: 중국유학 4년, 홍콩유학 2년, 영국유학 1개월	38세 대졸	38세 대졸 회사원	7세(초등 2학년)	X	이중국적	한국어	1년에 1~2회
H 가족	7년	12년	아내 5년	일본	아내: 한국유학 5년 남편: 캐나다 유학 1년, 일본 유학 2년, WHP 1년	43세 대졸	40세 대졸 회사원	5세	X	이중국적	일본어	1년에 1~2회
I 가족	6년	2년 4 개월	아내 : 7년	일본	아내: 한국유학 1년, 결혼 6년 남편: 일본유학 2년	31세 대졸	34세 대졸 (계약직)	3세	X	이중국적	일본어	1년에 1~2회
J 가족	5년	7년	아내: 2년	일본	아내: 뉴질랜드 유학 1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2년 남편: 일본유학 2년 6개월, 직장 4년 6개월	37세 대졸	33세 대졸 주부	3세	7개월	이중국적	일본어	1년에 1~2회

(조사시점 2022년 12월)

2.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 인터뷰는 비구조화 인터뷰로 유학경험과 이동 경험, 국제결혼에 이르게 된 경위, 가정내에서의 언어 사용, 계승어 교육, 육아, 교육가치관등을 중심으로 생애사를 질문하였다. 또한, 언어 초상화를 통하여 언어와 정체성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는 2018 년부터 2022 년 12 월에 걸쳐서 한 가족당 1 시간에서 4 시간 실시하였다. COVID-19 가 유행하기 전에는 대면으로 그 이후에는 줌 (Zoom) 이라는 화상 회의, 온라인 회의, 채팅, 모바일 협업을 하나로 합친 '원격 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생애사적 연구는 개인의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 생애사를 활용한 연구이다. 사회학이나 인류학에서도 자주 사용되며, 응용언어학에서는 이동이 가져다 주는 이민의 주관성 (subjectivity) 과 포지셔닝 (positioning), 정체성 의식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川上, 2014a).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을 경험한 사람들의 생애는, 이동이 정체성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三代 2011, 川上 2013). 가와카미 (川上, 2009) 는 국가간의 공간적 이동이외에 언어간의 이동과 언어교육 가테고리 간의 이동을 염두에 둔 이동하는 아이들⁶⁾ 의 생애사를 보고하였다.

5) 워킹홀리데이는 대체로 만 18 세~30 세 청년들이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 및 지역을 방문하여 최대 1년 동안 여행, 취업 및 어학연수를 병행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학습의 도전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무한에너지를 충전하는 좋은 기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워킹홀리데이 및 YMS 협정을 체결한 국가 및 지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홍콩, 대만, 스웨덴, 덴마크, 체코, 오스트리아, 영국 (YMS), 헝가리,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칠레, 스페인, 폴란드, 아르헨티나 등 24 개 국가 및 지역이다. 아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국가에서도 여행과 취업을 병행하며,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마다 협정 체결 국가 및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쿼터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호주, 독일, 스웨덴, 덴마크, 칠레 등 5 개국에서는 청년이면 인원의 제한 없이 워킹홀리데이에 참여할 수 있다. (<https://whic.mofa.go.kr/whic/about/center.jsp> 2024. 4.14 액세스)

6) 「이동하는 아이들」은 어린 시절 ①공간, ②언어간, ③언어교육 카테고리간 (즉, 언어학습장면간) 을 이동하면서 성장한 아이들을 지칭한다. 다만, 눈 앞에 살아있는 아이들 (실체개념) 만이 아닌, 유아기때부터 복수언어환경에서 성장한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석개념이다. 이 분석개념에는 「공간」 「언어간」 「언어교육 카테고리간」의 이동경험의 저장고가 세 개 있으며, 이 세 영역은 총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기억이 형성되어 간다. 또한, 「지금, 여기」의 일상적 이동의 가로축과 「그 때 그리고 앞으로」라는 과거와 미래를 개인사적 이동의 세로 축을 지닌다 (川上 2021 : 5) . 또한 「이동하는 아이들」학을 대상으로 한 범위는 모든 사람들이다. 「성인이 되어서 유학한 사람」이라도, 태어나서 이동과 다양한 언어를 접한 경험이 있고 성장해온 경험이 있다면, 그것 또한 고찰 대상이 된다.

한편, 이나가키(稲垣, 2016)는 이동하는 여성의 다언어(多言語) 육아의 양태를 가족의 과거와 역사, 부모의 인생, 가족의 바람, 장래의 계획 등 모든 것을 망라하는 『생각』을 포함하는 육아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 생애구술사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필자 자신도 이동하는 여성으로 한일국제결혼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연구협력자와 동일한 당사자성을 공유한다. 본 연구는 자유의지로 국제이동을 경험하여, 이중(二重)언어를 사용하는 한일국제결혼가정의 부모가, 이동을 통하여 언어와 정체성 구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생애구술사 인터뷰에서 한일국제결혼가정의 발걸음과 부모의 입장과 자녀의 입장 모두를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일한국제결혼가정 부모와 자녀도 그 존재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의 연구에서는 가시화되지 않았던 대상자들이다.

이와 같은 현황에 입각하여 일한국제결혼가정 부모와 자녀의 존재를 파악함과 동시에 그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탐구되지 않았던 사회적 현실과 소수사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생애구술사 연구법이 아주 유용하고 최적의 연구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언어와 정체성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Baxter (2016:34)는 포스트구조주의의 접근법에 있어서의 정체성을 취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Reciprocally, identities are constructed by and through language but they also produce and reproduce innovative forms of language (상호간에 정체성은 언어를 개입하여 구축되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언어를 생산하고 재생산하기도 한다)” 라며 언급하고 있다.

언어초상화는, 신체의 선에 자신의 언어를 그려 넣어, 색깔을 선택하여 그린 것이다. 1990년대부터 이민자 자녀들이 언어 레퍼토리와 자신의 언어에 대한 감정을 손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Krumm 등이 활용하였고 (Krumm, 2013), 성인의 언어 레퍼토리와 정체성 인식에 관해 탐색한 방법에도 활용되었다 (姬田, 2016). 또한, 언어 초상화를 그리는 활동 및 그려진 언어 초상화가 언어 레퍼토리의 배후에 있는 전기 (biography)의 이야기를 끄집어 내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야기 (narrative)는, 언어로 향하는 생각과 이야기를 선을 따라 향하는 것에 비해, 언어 초상화는 전체와 부분의 관련성도 가시화하며,

균열과 겹쳐짐이 모순된 형태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다면적 (Multimodal) 인 조사방법이다.

Busch (2017) 가 언어 초상화에서 탐색하는 언어 레퍼토리를, 살아온 언어의 경험 (loved experience of language) 이라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현상학⁷⁾의 개념으로 체험을 번역한 것이다⁸⁾.

언어 초상화는, 개인적인 언어가치의 의식화를 재촉하는 공간이며, 또한 동시에 그 의식화의 결과를 증명하는 도구로서 활용되기도 한다. 연구협력자에게는, 2020 년전 자료수집에는 대면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언어 초상화는 필자가 건내준 언어 초상화 실루엣 그림과 색깔 펜을 사용하여 그렸다.

2020 년이후의 자료 수집은 줌 (Zoom) 으로 실시하였으며, 언어 초상화는 사전에 필자가 메일로 보낸 언어 초상화 실루엣을 연구협력자가 출력하여 그린 후, 그 그림을 스캔하여 받아 보았다. 자료 수집시에는 언어 초상화에 대해 자신의 언어 (language) 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색을 골라, 언어 초상화 신체 부위에 어디가 합당한지를 생각하여 신체에 그려넣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손목 시계), 또는 신체 바깥에 그려 넣을 수 있는 (예를 들면, 가방이나 소지품, 배경) 을 그려넣어도 좋다고 하였다. 라벨이나 주석을 써 넣어도 좋다고 설명하였다. 연구협력자의 자녀들에게도 부모와 같이 동일한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아직 유아기인 E 자녀 (4 세), G 자녀 (8 세) 에게는 화상회의를 이용하여 인터뷰 당시 본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어휘) 을 좋아하는 색을 선택하여 그리게 하였다.

7) 현상학은 실증주의에 반한 관념론의 붕괴를 학문의 위기로 인식하면서 창시되었다 (유혜령, 2015). 현상학은 개인들의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들의 일상적인 체험을 중요하게 기술하므로 경험 세계에 대한 구체적 접근 방법을 가능하도록 한다.

8) 언어 사용과 체험은 각자의 개인에게 주어진 의미와 영향을 지칭하는 것으로, 언어가 사람들의 생활, 문화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稲垣 2022 : 10-11)

II 조사결과

1. 계승어 교육과 정체성

Skutnabb-Kangs (1981) 는 모국어의 정의에 대해서, 습득시기, 도달도, 사용빈도, 정체성 (내적, 외적) 4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모국어가 성장과정에서 쉽게 변화한다는 것을 논하였다. 또한, 모국어와는 별도로, 복수언어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언어를 다루는 용어로 계승어 (繼承語) 가 있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계승된 언어를 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나카지마 (中島, 2016) 는 계승어를 현지어에 밀려서 습득하지 못하는 언어로 간주하고 있다. 오타 (太田, 2021) 는 계승어를 “생활하는 장소의 언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자연스럽게 습득되지 않는 부모의 언어” 라고 정의하였다.

가와카미 (川上, 2023) 는 계승어 교육은 부모의 언어가 사용되지 않는 환경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모국어 교육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이동」 하는 중에 성장하는 자녀가 다언어 다문화를 접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여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당사자와 함께 생각하는 교육적 지원의 실천이라고 말하였다. 계승어 교육은 자녀가 부모와 선조의 언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는지, 결국, 주관적 의식에서 계승어 교육에 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툼슨 키노시타 (Thomson 木下, 2021) 는, 호주에서는 계승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연결된다 · 살아간다”라는 관점에서 계생어 (繫生語) 교육을 제창하였다.

표 1 계승어 교육과 정체성

가족	E 가족	G 가족	H 가족	I 가족	J 가족
언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일본어	일본어

E 가족은 가정내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한다. 가정내에서 E 가정내에서 부모 (남편) 가 자녀에게 일본어로 말하면 E 의 자녀는 “한국어로 말해” 달라고 한다. 밖에서는 E 와 자녀가 말을 할 때에는 일본어보다는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또한,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매일 영상통화로 한국어로 말하며 안부를 주고 받는다.

G 의 자녀는 가정내에서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한국에 있는 G 의 친척들과 한국어로 영상통화를 한다. 또한 G 의 아내가 가정내에서 한국 음식을 자주 만들며 G 의 자녀도 부모의 영향으로 매우 한국 음식을 자주 먹는다.

이중언어이론에 의하면, 인지·학력언어능력 (CALP: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과, 전달언어능력 (BICS : basic interpersonal language skills) 이 있다. 일반적으로 BICS 쪽이 일상에서 자주 빈번하게 사용되며, 깊은 사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G 와 G 의 자녀는 가정내에서는 한국어를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한편으로 G 는 자녀에게 정식으로 한국어를 가르친 적은 없다. 전달언어능력은 우수하지만, 인지·학력언어능력은 아직 미지수이다. 또한, G 의 이야기에 따르면 최근에 자녀 (현재 초등학교 3 학년) 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어도 일본어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성장 시기로 보았을 때, 또래 집단 형성이 원활한 시기이므로 언어적으로 보았을 때도 학교에서 사용하는 일본어가 생활 전반에 걸쳐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장기 발달에 따라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H 가족은 H 도 H 의 아내도 일본·캐나다와 한국에서 유학과 이동을 한 경험이 있다. 두 사람은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는 H 는 한국어를, H 의 아내는 일본어를 사용함으로 자녀는 두 언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학습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H 는 가정내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다. H 의 아내는 한국에서 국문국어과를 전공하여 원어민 수준의 회화가 가능하나, 한국어는 모국어라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는 없다고 하였다. Fishman (1991, 2001) 는 자녀가 있는 가정 뿐만 아니라, 혼인하기 전의 남녀에게도 언어 시프트 (language shift : 언어이행, 언어교체) 에 관하여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언어 시프트가 발생하기 전으로 되돌리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동반됨으로, 감산적 이중언어 (Subtractive bilingualism)⁹⁾ 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조기에 마음 가짐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9) 제 2 언어가 학습되어 감에 따라 모국어가 상실되어 가는 현상을 칭한다 (사카모토, 2014:5)

H의 자녀는 H의 한국 친척들이 한국어로 말을 걸어오지만 이해할 수 없어서 조금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한국어도 가르치려고 하였지만 도망치거나 거부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걸려 온 전화 내용이 무엇이었는데 궁금하여 물어보곤 한다. H가정은 문화적인 면에서는 자녀에게 100일 기념사진을 전통의상을 입혀서 촬영한 것이다. 자녀가 성장하면 양쪽(일본과 한국)의 정체성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념으로 남겨두고 있다.

J가족은 J가 일본에 유학을 한 경험이 있고 J의 아내는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한 경험과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통하여 이문화를 체험하였다. J가족은 가정내에서의 언어는 일본어만 사용한다. 한국에서 생활했을 때에는 J의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였기 때문에 한국어에 노출되는 부분이 많았고, 가정내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하고, 이해하였다. 그런데, 일본으로 이주하여 가정내에서는 일본어만 사용하게 되었다. J가 4살 자녀에게 한국 그림책과 동영상을 보여주려고 하면 “알기 어려우니까 일본어가 좋아”라고 말한다. J는 자신의 모국어인 한국어로 자녀들과 이야기를 하였을 때 “자녀들과 거리감”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J가 한국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문제로 자녀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한국어에 반감과 저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염려도 하였다. 한편으로, J의 아내는 J가 한국어로 자녀들에게 말을 걸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J의 언어 교육 방침은 가정내에서는 자녀들과 가족 공통어인 일본어로 말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J가족은 한국에서 생활할 때에는 한국 식문화를 즐겼다. 현재는 일본에 거주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J는 가끔씩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먹곤 한다.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으나 부모의 모국어를 강요함으로써 인하여 자녀와의 사이가 멀어지는 거리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가족공통어인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J에게는 모국어 계승보다는 가족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친밀감과 유대감을 키워가는 것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

J : 애니메이션이나 유튜브를 사용하여 한국어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전부터 있어 왔던 거지만, 최근에는 한국어를 들려주면 일본어가 좋아라고 확실하게 (딸이) 알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요. 한국어는 알기 어렵다. 내용이 어려워졌어. 자신 (J) 과 딸과 거리감이 생겨요. 한국어를 말하는 아빠는 싫다=아빠는 싫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J : 언어 (모국어) 를 계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략) 하루에 4 시간 자녀와 보내면서 한국어를 사용하여 거리감을 어느 정도까지 좁힐 수 있을지. 한국어에 반감과 저항감이 생기는 않는지 걱정돼요. 제가 한국어를 계속 말하게 되면 한국어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 아닌 저 (아빠) 와의 거리를 두게 되지 않을까 염려돼요. (2022.2.20 인터뷰, 原文日本語, 한국어로 번역 필자)

가와카미, 오제키, 오타 (川上、尾関、太田 2011:16) 는 일본어 (모국어) 와 거리감에 대해서 어린시절에 가정내에서 일본어 (모국어) 를 사용하거나, 일본어를 배우기는 하나, 일본어이외의 언어 사용으로 인해 자기자신과 일본어와의 사이에 거리가 발생한다. 그런데, 그 거리가 일본에 와서 대학에 다니면서 일본어를 배움으로 새로운 일본어를 발견하며, 스스로 일본어와 일본적인 것을 새롭게 다시 재정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에 오기전의 “일본어와의 거리감” 이 일본에 온 후에 변화가 발생했음을 기술하고 있으나 그 거리감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또한 그 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는 분석하지 않았다.

오타 (太田, 2022) 는 계승어와 거리감을 언어능력, 사용빈도, 개인적인 언어 가태고리, 계승어 화자와의 관계성을 염두에 두고 사용했을 때 감정과 의의를 중요한 고찰요소로 분석하였다. 오타가 지적한 계승어 화자와의 관계성이 중요한 고찰 요소라고 하였듯이, J가 한국어로 자녀에게 말을 걸으면 “알기 어려우니까 일본어가 좋아 (일본어로 말해 줘)” 라고 하며, (자녀와의) 거리감을 어디까지 좁힐 수 있을지, 오히려, 첫째 자녀와의 거리가 한국어로 말함으로 인해 점점 자신 (J) 과의 거리가 멀어지며 사이가 안 좋아지는, 한국어에 반감과 저항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J 는 아내가 한국어를 사용해서 가정내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자녀들이 아내와 지내는 시간이 길므로 자녀와 아내와의 유대 관계가 깊을 것이라고 한다. 아내가 한국어를 말함으로 자녀들도 재미있게 흥미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J의 아내는 J (남편) 가 한국어로 자녀들에게 말을 건넬 때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폭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꼭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했으면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J는 거주하는 곳이 일본인 만큼 닐슨 핀쿠스(Nielsen-Pincus, 2010)가 말한 장소가 사람과 감정, 인지 및 행동이 포함된 장소 유대감이며, 이런 장소 유대감은 장소 애착, 장소 정체성, 장소 의지 간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된다고 지적하였듯이, 한국에서 거주하던 J 가족이 일본으로 이주를 함으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간의 언어에도 한국어가 아닌 생활어(일본어)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J 가족은 J도 J의 아내도 유학 경험과 일본과 한국을 넘나드는 이동(이주)의 경험을 하였다. 나카지마(中島, 2016)는 문화 계승이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승어 교육은 해야만 하는 것”, “자녀는 계승어를 말해야만 한다”라는 언어관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물론, 부모와 자녀가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알 수 있는 언어가 존재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J의 가족과 같이 계승어만이 부모와 자녀를 정서적으로 이어주며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J는 자녀와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도 제 2언어인 일본어를 매체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J의 아내는 자녀가 한국어를 말했으면 하는 바람과, J에게는 자녀들에게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가부장주의(paternalism)라는 용어는, 영어의 father를 의미하는 라틴어 PATER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가부장적제도 온정주의(中西·上野 2003)나 부권적인 간섭주의(中村, 2007)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다 너를 위한 거야”라는 언설(言說)에 입각하여, 자녀를 위한다는 이유로 간섭을 한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개념·간섭의 원리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연구협력자인 I는 자신의 모국어인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I의 가족의 I는 일본에 유학한 경험이 있고, I의 아내는 한국어 전공으로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을 가진 소유자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만난 곳은 일본으로, 교제 중에도 계속 일본어를 사용하였으며, 한일국제결혼가정을 이루며, 자녀가 태어나도 가정내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였다. 가정내에서 일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본어가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I의 한국

부모님이 I의 자녀에게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였기에 I의 자녀는 한국어를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었다.

I: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의 정체성을 위해서일까요. 자녀가 일본인이 되고 싶다면 일본인으로... 특별히 자녀에게 너의 반쪽은 한국인이라서 한국문화나 가치관등을 무리하게 가르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2022.2.15 인터뷰, 原文日本語, 한국어 번역 필자, 밑줄 필자)

스즈키(鈴木, 2014 : 16)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출신국이 다른 자녀들을 국제 아동이라고 칭하며, “아버지의 문화와 어머니의 문화 두 개의 문화가 융합(통합)된, 자기 긍정적인 정체성”이 자연스러운 “국제 아동으로서 정체성”이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일본인이며 아버지가 독일인으로 독일에 거주하는 10 대 후반에서 30 대 전반의 여성 10 명을 인터뷰하여, 두 언어와 두 문화 간의 지식과 문화적 정체성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반수 이상이 두 문화의 귀속감이 있었으나 4 명은 독일이 우위로, 1 명은 일본이 우위였다. 문화 지식이나 이해는 문화적 정체성과 강한 관련이 있지만 언어와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협력자의 자녀들은 아직 성장단계로 가정내에서의 언어는 부모의 유학경험과 이동(이주)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H의 아내, I의 아내, J의 아내는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부모의 언어관과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자녀들의 계승어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자녀의 국적과 이름 짓기 (명명하기)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 아닌, 사람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여, 또는 사회적 속성과 뿌리, 귀속의식을 나타내기도 한다. 모든 문화가 이름 짓기에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 태어난 한일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부모에 의해 부여 받는 이름이 일본식 이름, 일본과 한국에서 양쪽 나라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름, 일본에서는 일본 부모의 성(姓名)을, 한국에서는 한국 부모님 성을 붙여서 이중국적을 신청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일국제결혼가정 자녀 중에는 야마다 세나(야마다 세나 やまだ 세나 山田世奈)와 같이, 성(姓名)은 일본인 부모님의 성을 그대로 따르고, 이름은 일본과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발음과 한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하타노(hatano, 2009 : 26)는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져서, 어떻게 불리워지는가에 대해 다른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른 사회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일부분이다”고 하였다.

이하 표 2를 통하여 한일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국적과 이름을 양상과 이에 따라 나타나는 부모의 생각과 정체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표 2 한일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국적과 이름 짓기 (명명하기)

국적	일본	이중국적	이름 짓기	일본식 이름	두 나라에서 모두 사용
	E	G, H, I, J		E, I	G, H, J

이름을 명명하는 방법에는 일본식 E, I 및 일본과 한국에서도 두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명명한 G, H, J로 나누어졌다.

E, I의 자녀는 이중국적이지만 이름은 일본식 뿐이다. I 자녀의 이름은, 일본 한자의 풀이를 명명한 것이지만, 한국식 한자 음독으로 변환할 경우 한국식 이름으로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풀이만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다. G, H, J의 자녀는, 이중국적으로 이름도 일본과 한국에서 사용한 가능한 이름이다. E 자녀의 경우는 일본 국적만 가지고 있으며 이름도 일본식으로 지어졌다. E 자녀는 성별이 남자이며, 병역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다나카(田中, 1996)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고유명사 속에 둘러 쌓여서 생활하는지 논하였다. 다나카는 인류 역사를 되돌아 보았을 때, 이름의 의미 이론적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의 이름에도, 그 이름을 지은 민족이라는 집단으로의 귀속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으로, 결국, 개인적인 레벨에 멈출 수는 없다고 언급하였다(다나카, 1996:11-12). 정확하게 지어진 이름에는 정체성이라는 이중성이 존재한다. 고유명사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물건을 독립시키는 것이 아닌, 더 많은 소속을

결정짓는 중요한 표기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田中 1996:187). 다나카가 지적한 것과 같이, 이름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사회적 정체성의 두 가지 측면이 관계하고 있다. 첫째, 개인과 개인을 다른 개인과 구분 짓는 것이며, 개인의 정체성의 측면이다. 둘째는 그룹 정체성인데, 즉 개개인이 속해 있는 복수 그룹에 연결된다는 측면이다.

한일국제결혼가정 부모는 유연한 생각과 그들 안에 존재하는 두 가지 문화의 결합에 의해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한일국제결혼가정에 있어서, 자녀의 이름은 단순하게 민족 정체성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민족성을 감추는 것이 아닌, 자신의 문화의 다양성과 개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름은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과 종교, 민족 그룹, 그리고 사회적 그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서로 충돌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변화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松本・大岩川 1994).

3. 국적에 의한 한일국제결혼가정 부모의 정체성

사사키 (佐々木, 2006) 는 사회학 분야의 입장에서 재일조선인이 국적변경후에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고 한국계 일본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를 그려내었다. 최근에는 한국·조선, 중국 국적을 변경한 귀화자도 증가하는 경향도 있으며, 그 국적도 다양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李 2016, 福本拓 2016).

표 3 한일국제결혼가정 부모의 국적

국적/성별	일본	한국
	E의 남편, G의 아내, H의 아내, I의 아내, J의 아내	E(아내), G(남편), H(남편), I(남편), J(남편)

E는 국적변경에 대하여 역사 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에 저항감도 있고, 국적변경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 G, H, I, J는 국적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도 못 느꼈고, 외국인으로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I는 자녀 교육을 위해 일본에 이주하였지만, 일하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국적 변경도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다. I를

제외하고는,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성은 국적변경 (귀화), 이름 말하기에서는 한국 국적으로 한국이름을 사용했고 직장에서도 생활면에서도 긍지를 가지고 한국 이름을 사용하였기에 민족 한국 정체성이 강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J: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국적을 변경)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으며, 물론 국적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정말 필요하다면 변경하겠지만 그 필요성이 정말 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2022.2.20 인터뷰, 원문 일본어, 번역 필자)

연구협력자는 국적을 변경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외국인으로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도 느끼지 못한다. I는 자녀 교육과 영주할 목적으로 일본에 이주하게 되었다. I는 아버지의 영향도 있고,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필요에 따라 국적을 바꿀 의향도 있다고 하였다.

4. 이름 표기에 따른 한일국제결혼가정 부모의 정체성

야부키 (矢吹, 2011) 는 국제결혼부부의 일본인 아내의 “이름 표기 (사용)” 의 선택에 주목하여, 6 개의 패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일본을 지향하는 아내는 일본에서는 일본인 성 (姓名) 을, 미국에서는 미국인 성을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미국을 지향하는 아내는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미국인 성함을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연구협력자들인 한일국제결혼가정 부모는 어떠한지 이름 표기를 어떻게 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4 한일국제결혼가정 부모의 이름 표기

이름 표기 (사용) 선택 종류	남편	아내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일본 이름 사용	E	G, H, I, J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 이름을 사용	G, H, I, J	
일본에서는 일본과 한국 이름을 혼합, 한국에서는 한국 이름을 사용		E

젠더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인 여성 E (아내) 는 자녀의 학교 행사나 일본에서 살기 위해 편리상 일본 이름 (남편 성) 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가르칠 때에는 한국 이름을 사용하며 활동하고 있었다. 한국과 한국어를 가르칠 때에는 자부심을 느끼며 보람도 느끼고 있었다. 본인의 정체성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자신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협력자 남성은 직장이나 개인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한국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성, G (남편), H (남편), I (남편), J (남편) 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 이름을 사용하고 표기하고 있었다. 4 명 모두 일본에서 일하면서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며 한국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H : 저는 바꿀 생각이 없어요. (국적) 안 바꿀 겁니다. (중략) 회사에서도 한국인이라서 한 번도 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고, 사회 생활하는데 있어서도 개인적으로도 차별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아시아 부서인데, 많은 공공기관과 업무를 할 때에도 당당하게 (한국 이름) 밝히며, 앞으로도 한국 이름을 사용하면서 생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2022.2.19, 인터뷰, 原文日本語, 번역 필자)

5. 이동에 의한 한일국제결혼가정 부모의 정체성

오노 (大野, 2022) 는 결혼이주여성은 “home” 에 내재된 비대칭적인 권력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주체적인 행위에 따라 복수의 안식처를 갖음으로 인해 “정주 (定住)” 라고 하는 정신적인 위안을 얻음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비대칭적인 젠더 구조 안으로 들어 간다는 딜레마를 겪어 안으며 그 과정을 통과한다. 결혼이주 여성은 단순한 사회통합의 “객체” 가 아닌, “이동하는 주체” 로 간주하며, 공간이동과 사회적 이동이 결합된 개념으로 “이동성 (mobility)” 을, 특정 상호관계에서 이탈을 포함한 개념까지 끌어 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결혼이민 남편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한경자, 2016). 이 절에서는 한일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영주와 정체성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표 5 이동에 의한 한일국제결혼가정 부모의 정체성

	일본에서의 이주기간	한국에서 이주기간	제 3 국에서의 체재기간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한 여성		I (4 년), J (1 년 7 개월)	J(뉴질랜드 1 년, 캐나다 3 년)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한 남성	G(11년), H(12년), I(2년 4개월), J (7년)		I (캐나다 1년)

E는 자녀를 키우면서 (일본에서) 조용하게 살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병이 나시거나 본인이 보살피 드려야 할 때에 한국에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하였다.

G, H, I, J는 일본에 영주할 예정이다.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을 얻었고 가정도 이루어 일본에서 생활하며 안정되게 보내고 있다. G,H는 일본에서 집을 구입했다. 집을 구입했다는 것은 노후도 일본에서 영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는 아내의 집에 잠시 머물고 있지만, 취업 활동 중 (2023년 1월시점에 취업이 결정되었다) 으로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일본에 영주할 목적으로 이주하였고 집을 살 목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도 생각하고 있다. I 아내도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일본으로 이주를 결심하게 되었다. I, J는 일본에서 유학 경험과 한국으로의 이주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자녀 양육을 위해서 다시 일본에 이주하게 된 경우이다.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기 편한 환경이라면 아내가 자라고 성장한 일본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한국에서 키웠을 때보다 입시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이며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일본에 이주하게 된 경우이다. 유학과 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두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도 능통하지만, 현재 일본에 거주하게 됨으로써 문화간 이동을 해 온 연구협력자의 정체성은 보다 포괄적이며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 발달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스즈키 (鈴木: 2006, 2008) 는, 인도네시아 사람과 결혼한, 인도네시아로 문화간 이동을 한 일본인 여성의 정체성 형성의 과정을 재구성하여, 사례로서 제시하였다. 이문화간 결혼 여성은 정체성 형성 과정 (모델) 은,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나선 (螺旋) 적으로 진행되어 간다고 논하였다. 즉, 출신문화와 현지문화가 접촉할 때마다, 위기적인 상황이 발생하며, 정체성이 재통합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됨에 따라 정체성이 형성되어 간다고 하였다.

6. 자녀 양육 교육관에 대해서

시마노(芝野 2022 : 88)는 “학교는, 부모가 바라는 언어 사용과 문화전달을 구현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라고 논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한국계 학교¹⁰⁾도 적고 지역에 따라서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나 한국교육원등에서 개최하는 토요한글학교¹¹⁾도 적다. 각 가정의 부모 교육관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달라지며, 가정내에 언어정책(FLP)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찾을 수가 있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사람과 물건, 돈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선 정보 전달이 가속화되었다. 오늘날 국제이동을 하지 않고서도, 해외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가 있다. 일본내 거주하는 한일국제결혼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서 대중문화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다. 일부 한일국제결혼 부모들에게 있어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이미 그들의 일상의 일부분이 되어 있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한일 국제결혼 가정의 일본 부모들은 한국어와 라이프스타일 및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을 깊게 이해하고 있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일국제결혼 부모 중에는 일본과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일하면서 가정을 꾸리며, 출산과 양육을 일본에서 경험하는 사람이 많다. 자녀의 성장과 함께 연구협력자들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걸까(시킨 걸까),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본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한일국제결혼가정 중에는 일본의 복지와 보육제도가 잘 되어 있고, 생활의 편리함에도 매력을 느끼며,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에서 공부하는 것이 공부에 대한 부담감도 적다는 이유에서 일본에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 30 대이후 한일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10) 각종학교: 동경한국학교(동경), 코리아국제학원(오사카). 일조(一条)학교: 건국 유·초·중·고등학교(오사카), 오사카 금강 인터내셔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오사카), 교토국제중학교 고등학교(교토), 아오가가쿠인즈쿠바 중학교·고등학교(이바라기)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7117800073> 2023.2.7 액세스)

11) 어린이 토요학교는 동경 6 곳, 치바 1 곳, 야마나시 1 곳, 사이타마 4 곳, 니가타 1 곳, 미야기 1 곳, 아이치 1 곳, 오사카 3 곳, 효고 3 곳, 히로시마 1 곳, 오카야마 1 곳, 오키나와 1 곳, 가나가와 1 곳으로 함께 25 곳 (2023 オリニ土曜学校ホームページ用.pdf (mindan.org) 2024.2.7 액세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자녀들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일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한일국제결혼가정 연구협력자들은 엘리트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일반 학교에 보내서,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한국과 영어권 나라에 자녀들이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내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관해 아래의 연구사례들을 협력자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E, G, H, I, J의 가족은 엘리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는 공립이나 시립 학교에 보내서, 본인이 대학생이나 성년이 되었을 때 한국 유학과 영어권으로의 유학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일국제결혼가정 자녀로서 국제학교나 한국계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녀들을 키워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H는 국제학교의 학비가 비싸고 (년간 학비가 연 2000만원정도)라는 것도 있고, 공립과 시립학교에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G는 중국 (4년간) 과 홍콩 (2년간) 에서 유학을 경험했다. G의 아내는 한국 자매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웠고,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여행회사에서 1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다. G의 자녀는 현재 시립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G 부부는 이동의 경험을 통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와 영어를 접하였다. G 부부는 이동과 경험을 통해서 쌓아온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살려서 자녀에게도 원어민에게 영어 레슨을 한 달에 4번 받게 하고 있다.

또한, 유학경험과 이동의 경험을 지닌 J의 아내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J와 J의 아내가 유학과 이동을 통해 나라를 이동하였듯이 자녀들도 시야를 넓혀서 새로운 세계를 봤으면 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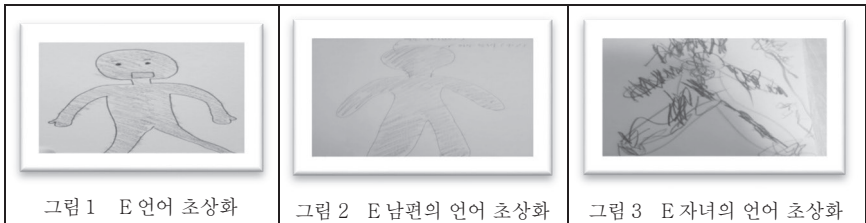
J 아내 :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에도 휴일이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가고 싶고, 자녀들이 성장하면 한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또는 제 3국으로 가서 새로운 시야를 지닌 사람으로 있으면 합니다. (2022.2.20 인터뷰, 원문 일본어, 번역 필자)
--

G, H, I, J는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 한국으로 유학을 가서 한국과 한국어를 배웠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부모들의 유학경험과 이동경험이 모두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각 가정의 부모들의 교육 방침에 따라 학교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협력자는 국제간이동을 거쳐 본인에게 “이동”과 “언어”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본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세계는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눈 앞에 있는 자녀들을 최선을 다하여 양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학과 이동을 경험한 한일국제결혼 부모는 자녀에게 육아 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정도 있었지만, 일본어를 사용하는 가정도 있었다. 이는 부모의 유학경험과 이동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언어와 문화가 육아, 즉 교육관에 그다지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7. 언어 초상화에서 보여지는 정체성

7.1 E가족 언어 초상화



<그림 1 E언어 초상화 스토리 요약> (2020.2.17 인터뷰, 원문 한국어, 번역 필자)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기에 일본어 비율이 높다. 머리의 반과 배, 가슴은 한국어로 물색 (파란색) 으로 칠하였다. 그 이외의 부분은 일본어로 빨강색으로 칠했다. 한국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신체의 중심에 모국어를 그려 넣었다. 그리고 생각할 때는 한국어로 생각할 때도 있고, 일본어로 생각할 때도 있어서 반씩 색깔을 나누어서 칠했다. 한국어로 말할 때는 한국어로 생각하고, 일본어로 말할 때는 일본어로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는 인생의 도구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손과 발에는 일본어로 색칠했다. 모국어인 한국어를 신체 중심에 있는 가슴에 위치시켰다. 가슴과 심장에 언어를 그려 넣는 것은 본인의 중심에 핵 (중심) 으로 생각하여 해석하기 (Coffey, 2015) 때문에, 한일국제결혼가정을 꾸려서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한국어가 중심인 핵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2 E 남편의 언어 초상화 이야기 요약>

(2020.2.17 인터뷰, 원문 일본어, 번역 필자)

E 남편은 한국에서 한국어로 물색(파란색)을 사용했던 때에 비하면(한국어를) 많이 잊어버렸다고 말한다. 일본어는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고 몸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국어는 몸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몸통은 물색(파란색)으로 한국어가 조금 남아 있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한국어로 말하고자 하면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나오기 때문에 입은 일본과 한국 반반으로 그렸다고 한다. E 남편은 가정내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가족 언어로서 한국어를 사용해서 유지하려고 한다.

<그림 3 E 자녀의 언어 초상화 이야기 요약>

(2022년 9월 25일 인터뷰, 원문 한국어, 번역 필자)

E 자녀는 4살이다¹²⁾. 4살이 되면 부사(副詞)를 사용해서 말을 사용할 수 있고, 4-5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서 말할 수 있다. 어휘 습득은 급속도로 늘어난다(김경희 외 2016:85). 인터뷰에서는 E 부부가 참가하여, 자녀가 그런 언어 초상화를 설명해 주었다. 자녀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보여 주면서, 한국어로 많은 설명을 해 주었다. 인터뷰 마지막에 언어 초상화에 대한 질문을 하자, 몸통 <파랑색>은 한국어로 그 이외 나머지는 일본어라고 대답해 주었다. 몸과 심장에 언어를 그려 넣는 것은 본인 스스로 중심 핵이라고 해석한다고 볼 수 있기(Coffey, 2015)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와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E 자녀에게 있어서 한국어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 자녀 : 한국어는 빨간색이에요. 이것이 일본어예요.

E : 한국어와 일본어. 몸통은 한국어, 그 이외 나머지는 일본어라고 말했어요.. (2022.9.25 인터뷰, 원문 한국어)

12) 필요한 문법적 조사 및 전치사 사용 능력이 생기며, 부정법 및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 3-4 세 유아는 단수대명사(나, 너)와 복수대명사(우리)를 사용하며, 4-5 세가 되면 밑에, 위에 등의 부사를 구사하여 4-5 개의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사용한다. 어휘의 획득은 급속도로 늘어난다(김경희 외 2016:85)

7.2 G 가족 언어 초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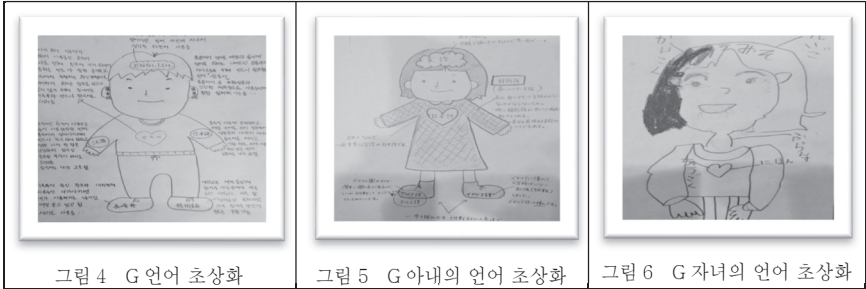


그림 4 G 언어 초상화

그림 5 G 아내의 언어 초상화

그림 6 G 자녀의 언어 초상화

〈그림 4 G 언어 초상화 이야기 요약〉 (2022년 4월 17일 인터뷰, 원문 한국어)

머리 부분에 영어를 쓴 이유는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한번은 생각하지 않고서는 모국어와 같이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머리에 썼어요. G는 광둥어는 양 귀에 있어요. 듣는 것은 (광둥어를) 많이 들어서, 아니 너무 많이 들었다” 고 한다. “2년간 (중국에) 살면서...홍콩에서 영어를 배우러 유학을 갔지만, 사실 저는 아시아인이고, 제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광둥어로 말을 걸어 오잖아요. 제가 외국 외국인인 것을 모르니까요”라고 언급하였다. (광둥어는) 듣는 것만 잘해서 (말하는 것은) 잘하지 못해요. 광둥어를 들으며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주문하거나 하는 정도예요...모를 때는 거의 영어로 사용하면 통하니까요.

왼쪽은 일본어지만, 자주 사용하고 오랜 시간 사용하지만, 그래서 필요한 언어라고 기입했다고 한다. 일본어는 제 왼팔, 오른팔은 중국어라고 기입했어요. G는 일하는데 있어서 중국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재차 유학생들이 입국하게 되어서 중국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G는 살고 있는 지역의 ○○방언은 구사하지 않으나, G의 자녀가 유치원때부터 ○○방언을 구사한다고 말한다. G의 아내도 ○○방언을 말하고, 장인, 장모, 처남도 ○○방언으로 말하기 때문에 ...G는 ○○방언을 항상 듣고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한다. G는 ○○방언은 사용하지 않고 표준어로 가족과 이야기한다. 항주어 (杭州語)는 대학이 항주에 있어서 사용을 했고, (항주에 있는) 대학에 다녀서...그러나, 항주어 (항주 방언)는 G는 모른다고 한다. 중국은 광대한 지역이라서 방언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하다고 한다. (항주 방언은)

모르지만..., 동시에는 매일 들으면서 생활했기에... (의미는 모르지만) 항주어를 말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직장에서는 상해 방언(上海方言)도 들리기 때문에 대체로 의미는 알고 있다고 한다. 발 부분에는 그러한 언어가 남아 있다는 의미에서 썼다고 말한다.

비율로 따져보면, 한국어 40%, 일본어 20%, 중국어 10%, 영어 10%, ○○방언 10%, 항주어 2.5% \times 2, 광둥어 2.5% \times 2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여러 언어가 사용되는 다언어 환경에서 생활한 G는 언어 초상화도 다양한 언어가 그려져 지금까지 G가 배워온 언어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G는 “홍콩이라는 곳도 정말 다국적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프랑스 학생, 터키, 몽골, 베트남 학생이 있었어요. 특히 (각국의 언어를) 듣는 것은 (정말 많이) 들었어요. 태국 음식점도 많아서 그러한 레스토랑에 가게 되면 “사와디카”, 학생들과 교류도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은 영어로 하였지만, 각국의 언어가 들려 올 때가 있었다” 라고 말한다.

G가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 홍콩, 대만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들려온다. 일본어가 80%, 가끔 한국어가 10%, 나머지 중국어가 5%, 최근 영미권 학생이 와서 영어를 사용하지만 그 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영어를 사용할 기회도 없었지만, 가끔은 원어민 선생님이 와서 말하기 때문에 2%정도 된다고 한다. 최근에는 프랑스, 미국, 독일에서 온 학생들이 있다. G가 사용하는 언어가 지금 직장에서 일할 때 들려오는 환경이다. G는 중국어가 가능한 자로서 처음에는 채용되었지만, 지금은 한국어 부분에서도 일을 하고 있다. 동료와 중국어 부분은 분담해서 일을 하고 있다. G가 중국에서 일본어 전공으로 유학 생활을 할 때, 중국의 여러 각 지역의 언어를 들으면서 유학생 생활을 보냈다. 중국에서 유학이 끝나자 홍콩으로 영어를 배우러 이동을 하였다. 홍콩에서는 영어를 배우러 온 다국적 사람들의 언어가 들리는 환경에서 생활을 하였다. G는 자신이 배워왔던 언어를 직장에서 사용함으로써 만족감도 상당히 높다고 한다. G도 모국어는 심장에 그려 넣어서, 본인 스스로도 모국어(한국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Coffey, 2015). 언어 초상화에도 나타나 있듯이 다양한 언어가 신체 각 부분에 분포되어 있다. 이는 G가 이동을 통하여 경험한 언어가 모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5 G의 아내 언어 초상화 스토리 요약>

(2022년 4월 17일 인터뷰, 원문 일본어, 번역 필자)

영어는 머리 <갈색>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 (영어는) 대학 입시에서 무리하게 외웠던 기억이 있다고 한다. G의 아내는 “한국어는 몸에 걸친 옷 <녹색>과 같다. (한국어는) 매일, 입는 옷과 같다고 말한다. 때에 따라서 한국어가 많은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 주며,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라고 말한다. 한국어가 옷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일본어는 일본인이어서 J의 아내에게는 가장 중요한 언어라고 한다. “한 발 내딛는 도전하는 의미로 발 (구두) <갈색>으로 칠했어요. 아랍어/터키어는 이슬람 권의 문화,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언젠가는 배워보고 싶고, 이집트와 터키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였다. G의 아내는 대학 시절에 고고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중동 역사와 문화와 언어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 “이탈리아어는 이탈리아에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대학교에 다닐 때 조금씩 (공부) 도전 (공부) 해 왔어요. 이탈리아어는 계속 배워 보고 싶은 동경의 언어예요”라고 말한다. G와 같이 G의 아내도 언어에 관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다언어 정체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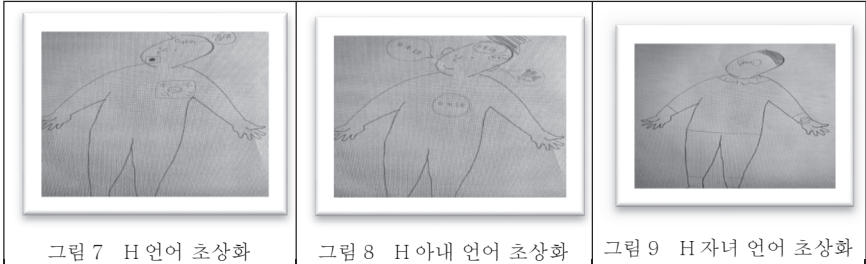
<그림 6 G자녀의 언어 초상화 스토리 요약>

(2022년 4월 17일 인터뷰, 원문 일본어, 번역 필자)

일본어로 친구와 말할 때는 즐겁고, 영어도 좋아해요. 왼쪽은 한국어, 일본어는 마음의 중심, 영어는 뇌, 머리에 위치시켰다고 한다. 초등학교 2학년생인 G자녀는 학교에서는 일본어로 수업을 듣는다. 가정내에서는 주로 한국어로 말한다. 중국어는 G가 유학시절에 학습한 언어이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언어이다. G의 자녀는 중국어는 하트 모양을, 프랑스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다. 아랍어는 왼쪽 다리, (아랍어를) 말하면 (다리에서) 나온다고 한다. 한국어, 일본어, 영어를 좋아하는 이유는 (말할 때) 재미있어서라고 한다. 한국어가 재미있는 이유는 아빠가 책을 읽어 줄 때, 비밀 이야기를 말할 때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어는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와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아랍어,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중에서 좋아하는 언어는 중국어와 한국어라고 한다. 한국어는 음악 수업 시간에 노래로 배운 적이 있다¹³⁾. 음악 시간에 (한국어 인사말 노래) 배워서 정말 즐거웠다고 한다. G 의 자녀는 유치원 때부터 본인이 한국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며, 아버지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유치원 친구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한다. G 자녀는 “친구들이 ○○는 한국인이네” 라고 하면 기분이 좋다고 한다. 엄마와 아빠와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 기분이 매우 좋다” 고 한다. 유튜브로 (여러 나라의 언어) 곤충이나 음식 등을 듣는 것이 많아서 언어 초상화에도 목에 프랑스어, 머리에 영어, 한국어, 가슴에는 중국어와 일본어를 그렸다. 중국어와 일본어는 마음의 심장 부분에 그려 넣으므로 본인 스스로가 두 언어가 중심에 있음을 나타내었다.

7.3 H가족 언어 초상화



<그림 7 H 언어 초상화 스토리 요약>

(2022년 2월 19일 인터뷰, 원문 일본어, 번역 필자)

H는 머리에 배와 비행기와 상자를 그려 넣었다. H는 “가장, 머리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일의 영역으로 말씀드리자면, 배 (船) 라든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통과 수속 절차를 밟아서 배에서 비행기로 운반하여 해외에 보내는 것인데요. 모든 일이 영어로 이루어져서 그 점에서 머리 속에는 일 (영어) 로 가득 채워 그렸어요” 라고

13) 초등학교 음악 2, 음악으로 모두가 이어지자, 메시지, 스기모토 류이치 (작사, 작곡). 교과서계재곡일람 2020 년도판, 초등학교음악교과서 소개 (kyogei.co.jp) <https://textbook.kyogei.co.jp/2020shou/songlist.html> (2022.9.19 액세스)

하였다. 영어는 비율적으로는, 주 5회는 일(영어를 사용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20-30%정도이고, 일본어와 한국어가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10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며 국적변경(귀화)을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한국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성인으로서 자각을 가지고 생활하고 싶다고 하였다. H는 “자신에게 있어서 태어난 나라는 한국, 죽을 때까지 한국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언급한다. 외국인으로서 정주하고 있는 H는 일본에서 일도 순조로우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그림 8 H의 아내 언어 초상화 스토리 요약〉

(2022년 2월 19일 인터뷰, 원문 일본어, 번역 필자)

모자는 머리 안이 일본어와 한국어 <오른쪽>으로(자동적으로) 전환되는 모자라도 있었으면 한다고 바랐다. 머리의 사고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혼재되어 있다. 한국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보통은 국제결혼한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일본어 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남편의 일본어와 한국어를 들으면 자신(아내)이 국제결혼해서 한국어가 자신의 근본적인 깊은 뿌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머리 속에서 한국어가 없어지는 경우가 아니기에 머리 쪽에 그렸다. 귀 <오른쪽>에는 한국의 비디오 마크가 그려져 있다. 최근,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많아져서 한국어 듣는 것도 좋아하고, 생활에도 한국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에(일단) 영상(드라마)을 보고 있다. 입은, 입에서 나온 것은 한국어로, 무언가를 느끼거나 전달하는 것은 일본어라고 생각해서 가슴 부분에 그려 넣었다. 한국에 있다면, 마음이 더 크게 변해 있었을 것이다. 일본어는 80~90%를 사용하고 있다. 드라마는(한국어) 청취를 위해서 시청하고 있다. H아내는 슈퍼에서 장을 볼 때 한국산이라고 쓰여 있으면, 국산(일본산)과 한국산을 동일하게 생각해서, 쓰여진 한글을 볼 때 같은 공간 속에 일본과 한국적인 요소가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한일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는 일본을 응원하게 되면 남편에게 웬지 모르게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어느 쪽도 응원을 하게 된다고 한다.

한국에 유학 경험이 있고, 한일국제결혼가정을 이룬 H의 아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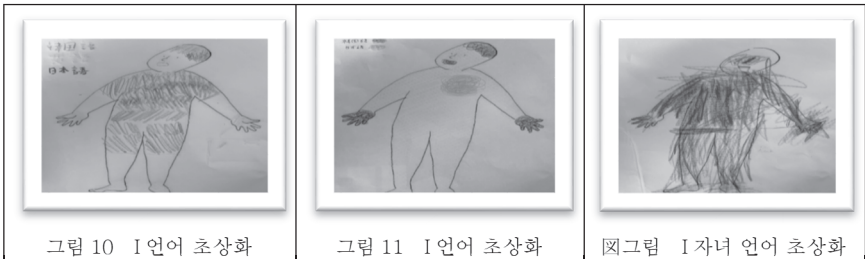
일상생활에서도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중심에는 한국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한다. 한국 드라마를 통하여 한국어가 들리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장을 볼 때는 국산(일본)과 한국산이 같다고 여기고 있으며 H의 아내가 한국과 일본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9 H자녀의 언어 초상화 스토리 요약>

(2022년 9월 20일 인터뷰, 원문 일본어, 번역 필자)

등근 테두리 안경에 등근 모자를 쓰고 있는 할아버지를 그린 H의 자녀. H의 자녀는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의 전화를 멀리하는데, 통화가 끝나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해 했다. 한국어에 관한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한국이라는 이미지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할아버지이고 그래서 할아버지를 그린 것이다. 가정내에서의 언어는 일본어가 중심이지만, 한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통하여 한국어를 어느 정도 접하고 있었다. H의 자녀에게 있어서 한국어는 아버지 나라의 언어이며, 거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수화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언어이지만, 자신(자녀)이 말할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저항감이 있다고 보여진다.

7.4 I가족 언어 초상화



<그림 10 I언어 초상화 스토리 요약>

(2022년 2월 19일 인터뷰, 원문 일본어, 번역 필자)

한국어는 <보라색>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모국어이므로(모국어)가 몸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어는 <빨간색>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모국어보다는

일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에, 머리와 T-shirt 는 일본어와 한국어를 반 썩 그려 넣었고, 입술은 일본어를 그려 넣었다고 한다. 손과 발 부분에는 “연녹색은 영어를 나타내지만 손과 발, 구두로 표현한 것은 일상생활보다 업무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림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일에서 사용되는 영어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림 11 I 아내의 언어 초상화 스토리 요약>

(2022년 2월 19일 인터뷰, 원문 일본어, 번역 필자)

모국어인 일본어 <오렌지색>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일본어가 존재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한국어 <빨간색>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손과 머리, 입을 사용하지 않으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어서 그림과 같이 그렸다고 하였다. I의 아내는 한국에서 5년간 정주하면서 남편의 가족과 한국어로 이야기하며 생활하였다. 또한, 자녀가 복지시설이나 공원 등에서 필요에 따라서 한국어를 사용했었다. 현재는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한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림 12 I 자녀의 언어 초상화 스토리 요약>

(2022년 2월 19일 인터뷰, 원문 일본어, 번역 필자)

4살이 된 I 자녀에게 일본어와 한국어를 색으로 표현해 보자라고 하니, 그림 12와 같이 그렸다. 일본어는 빨간색, 한국어는 녹색으로, 빨간색은 옷으로, 녹색은 벨트라고 하였다. 중심에 벨트 <녹색>을 찬 모습을 그려 넣었다.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I 자녀는 한국에서는 가정내에서 일본어를 사용하며 생활하였기에 몸에 입혀진 옷은 빨간색으로 일본어를 그렸고, 중심부 허리에 벨트를 그려 넣어서 일본어로 그린 것은 매우 흥미로웠다. 앞으로 성장할 I의 자녀는 일본에서 생활하게 되겠지만 성장단계에서 보자면 언어 초상화는 충분히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7.5 J가족 언어 초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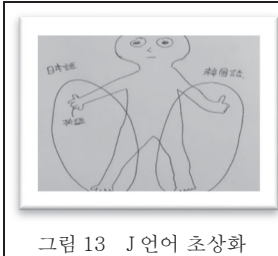


그림 13 J언어 초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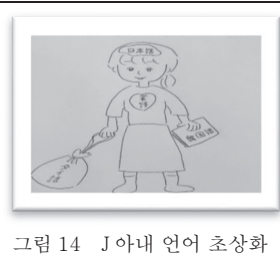


그림 14 J아내 언어 초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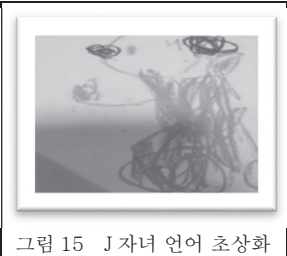


그림 15 J자녀 언어 초상화

<그림 13 J언어 초상화 스토리 요약>

(2022년 2월 20일 인터뷰, 원문 일본어, 번역 필자)

J는 언어 초상화에 그린 그림은 깊은 의미는 없다고 한다. 오른손 잡이인 J는 왼쪽이 일본어, 오른쪽이 한국어로 반반을 차지하고 있다. J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한국어는 오른손, 오른쪽 다리, 일본어는 왼손, 왼쪽 다리. (일본에서) 보통 생활하는데에는 왼쪽 다리도 오른쪽 다리도 불편함 없이 걷거나 어떠한 물건을 양손으로 집어 올리거나 할 때에도 그다지 부담감이 없다고 한다. 오른손 잡이인 J는 한국어를 오른쪽에 배치함으로 안정되고 잘 사용함을 나타내었고, 잘 사용하지는 않는 왼손에는 일본어를 그려 넣었으나,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림 14 J아내 언어 초상화 스토리 요약>

(2022년 2월 20일 인터뷰, 원문 일본어, 번역 필자)

J아내는 4개의 언어를 그려 넣었다. 머리는 일본어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에 머리 쪽에 그려 넣었다고 한다. 마음은 항상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 영어를 좋아해서 이렇게 그렸다고 말한다. 손에는 한국어 교과서를 가지고 있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그려 넣었다고 한다. 구두에는 태국어를 그렸는데, 질질 끌고 있는 짐과 같은 생각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한다. 원래 전공이 태국어인데 그다지 태국어를 완벽하게 정복(구사)하지 못하고 태국어를 못하는 자신이 한심한 것과, 짐으로 느껴진다고 하여 질질 끌고 있는 모습을 그렸지만,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다시 배워 보고 싶다고 하였다. 비율적으로는 일본어는 90%, 영어는 7%, 나머지 2.5%는 한국어, 태국어는 0.5%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 한국에 거주했을 때는 한국어를 지금보다 더 말하고 사용했지만 육아에 쫓겨서 지금은 좀처럼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영어를 좋아하고 동경하는 J는 본인의 이동 경험에서 얻은 영어를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림책이나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영어를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는 J가 자녀들에게 사용해 주길 바라며 가정내에서도 한국어를 쓰기를 바라고 있으나 J는 자녀와의 거리가 멀어질까 봐 한국어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그림 15 J자녀 언어 초상화 스토리 요약〉 (2022년 9월 30일 SNS로 답변)

J자녀는 언어 초상화를 그렸으나, 그린 내용에 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지만, 설명하는데 상당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III 고찰

E, G, H, I, J 한일 국제결혼가정은, 부모가 서로 유학 경험이 있다. 유학 경험이 있는 한일국제결혼가정 부모는 자녀에게 계승어 교육, 자녀의 이름 명명하기, 국적, 교육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E 가족은 가정내에서는 한국어를 가족 간에 서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인인 E 남편이 일본어로 자녀에게 말을 걸면 “한국말로 말해” 라고 하면서 가정내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게 보였다.

G 와 G 의 아내는 서로 유학경험과 이동의 경험이 있으며, 언어 초상화 (그림 4,5,6 참고) 에는, 신체 부분별로 각각의 언어를 그려 넣었고, 다언어 (多言語) 정체성임을 알 수 있었다. G는 중국과 홍콩에서 유학경험을 쌓았고, G의 아내는 한국에서 유학경험과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직장 일을 경험한 것은, 자녀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G 가족은, 가정내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G자녀는 한달에 4 번정도 원어민에게 영어 레슨을 받고 있고, 유튜브로는 곤충과 먹는 영상을 한국어, 중국어, 프랑스어, 아랍어로 시청하고 있다. 또한, G의 자녀는

학교에서도 본인의 정체성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표현하고 있었다.

J가족은 J아내가 한국어를 그다지 말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생활했을 때에도 언어적인 벽이 있어서, 육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에 다시 되돌아오게 된 것도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오게 된 것이다. J자녀는, J부모님의 한국어를 다 이해하고 들을 수 있었으나 일본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언어 초상화에도 그랬듯이 (그림 15) 아직 미취학 아동이라는 것과 동시에 사람은 그랬지만 언어적인 문화적인 내용은 들을 수 없었다. J가족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동을 하였다. J아내는 언어 초상화 (그림 14) 에도 그랬듯이, 손에 한국어 교과서를 들고 한국어는 꼭 공부해야만 하는 언어로 정하였다.

표 5 와 같이, 유학 경험과 워킹홀리데이 경험이 있어도, 자녀에게 언어와 문화적 계승은 각 가정의 상황과 부모의 가치관과 교육관에 따라 계승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스즈키 (鈴木, 2012) 가 논한 것과 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거주지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상황”, “부모 자신의 지향성”, “언어, 문화, 교육에 관한 부모의 가치관”, “가정내의 경제상태” 등도 변화하여, 이것들은 언어·문화를 포함한 자녀 발달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미요시 (三好, 2023) 는 부모가 유학경험과 해외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면, 그 자녀의 유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는 본 연구의 연구협력자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협력자는 이미 제 2 언어로의 투자를 마치고, 유학지나 본국을 떠나 국제결혼가정을 이룬 부모들은 제 2 언어습득을 하게 되는 유학경험을 도진¹⁴⁾, 미래의 토대¹⁵⁾ 가 되는 경험이라고 말하였다. 유학경험은 연구협력자들에게 있어서 현재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고, 또한 이동을 통한 배우자와의 만남은 국제결혼가정을 이루기 위한 이동성 (mobility) 은 도진

14) 연구협력자는 유학경험, 즉 제 2 언어습득이 투자가 아니라 [도진]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였다.

15) 연구협력자는 유학 경험과 워킹홀리데이를 통한 이동 경험이 미래의 토대가 되는 경험이라고 말하였다.

(투자) 이며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다.

G는 유학경험이 틀림없이 현재의 일로 이어졌고 G의 아내는 유학으로 길러진 경험들은 한일국제결혼가정 환경 안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한 워킹홀리데이를 통하여 한국에서 일할 때 G를 만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동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G 가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I는 유학이라는 경험은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며,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말하였다. I의 아내에게 있어 한국유학 경험은 어학 공부라 주된 공부였지만 언어를 포함한 문화를 알 수 있는 시기여서 좋았다고 한다. 결혼을 하고 한국에 이주한 경험은 유학과는 다른 한국 경제를 포함하여 사회전반에 걸친 시스템을 이해하며,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가와카미(川上, 2013)는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다른 언어를 접하면서 생활했던 경험이 몸 전체에 축적되어 가며, 그 경험은, 실제적인 감각의 기억으로서 자녀의 마음 속에 깊게 남게 된다고 한다. 다른 언어에 따라 타자와 이어지는 즐거운 기억도 다른 언어를 통한 소통이 잘 안 되는 불완전한 쓰디쓴 경험도 기억으로 축적되며, 지형을 형성해 가는 지층과 같이 자녀의 내면에 형성되어 간다. 그 기억이 복수 언어에 대한 의식이나 자신의 언어능력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 사람이 성장해 가는 과정속에서 자기 자신을 형성해 가며 동시에 사회적 관계성 안에서 자기를 변용, 변화해 간다고 주장한다. 가와카미가 말하는 “경험”이라는 것은 G 가족, I 가족, J 가족에게 있어서, 유학과 이주의 복수(複數)의 “나라” 사이에서 일로 이어지며 사회전반에 걸쳐서 사회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국제결혼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사키(岩崎, 2018)는 국제결혼가정 학생의 일본유학경험이 어떻게 정체성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언어 초상화를 인용하여 조사하였다. 어린시절 복수 문화·언어 환경에서 자란 기억도 영향을 받아 일본어전공과 일본 유학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유학중에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일본으로 이어지는 하이브리드(Hybrid) 정체성을 의식하게 되었다. 또한, 정체성 형성에는 언어가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조사되었다. 이와사키 연구는 다언어와 다문화 속에서 성장한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관한 부분은 본 연구에 연구협력자의 자녀도

유학과 이동에 의해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추정되기에 이와사키 연구와 일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연구협력자의 자녀들은 아직 성장과정에 있으며, 정체성 형성에는 부모의 가치관과 사고관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언어와 문화의 계승에 어떻게 관여하여 이어지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도 이동의 경험에 의해 정체성은 유동적으로 변화¹⁶⁾,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한류의 영향과 미디어의 발달¹⁷⁾로 인해, 한국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기에 한일국제결혼가정의 한국 출신 부모는 한국인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여진다¹⁸⁾.

나오는 말

본 연구에 따라 유학과 이동을 경험한 한일국제결혼 가정 부모와 자녀의 정체성 형성은, 단순히 언어능력에 따른 것이 아닌 그 이외의 문화적 요소인 식문화와 생활습관, 가치관, 교육관등에 따라서도 좌우될 수 있음이 판명되었다. 또한, 유학과 이동경험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한일국제결혼가정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어떻게 계승시켜 나가느냐의 문제는, 각 가정의 상황과 부모의 가치관, 교육관등에 따라서도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자녀들의 학교선택도, 부모의 유학과 이동의 경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각 가정의 상황과 부모의 교육관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다만, 유학과 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본 연구의 협력자는, 이전에 자신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6) Block (2007) 은, 정체성은 제 2 언어의 콘텍스트 안에서 교섭되며, 유동적으로 항상 변용된다고 하였다.

17) 박 (2008) 은, 한국계 미국인 자녀 295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한국 미디어 이용도가 우위에 있으면 독립변수가 높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한국 미디어를 이용하면 할수록 한국인 정체성도 강해진다고 보았다. 이 (2016) 은, 디아스포라 모국 미디어 이용에 대한 벤쿠퍼에 주재하는 한국인 8 명을 인터뷰하였다. 한국 미디어 이용동기로는 자녀의 한국어 교육,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한국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음과 한류의 인기가 높아져, 모국의 문화에 자신을 높게 만들어 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18) 김 (2019) 은, 한국 미디어 콘텐츠를 접촉하는 것이 국가 정체성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수라고 밝혔다.

유학과 워킹홀리데이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교환유학으로 한국에 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영주 (이동) 에 따른 한일국제결혼 부모의 정체성에는 두 가지 문화와 언어가 공존하고 있었으며, 아버지 나라와 어머니 나라의 두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정체성으로서 특징 지어볼 수 있었다.

연구협력자 언어 초상화를 신체부위별로 분석해 보면, 머리와 심장 (가슴, 마음) 에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그려져 있고, 자신의 핵 (중심) 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가슴과 손 부분의 그림에서는, 본인들이 일본어 (모국어가 아닌 생활언어) 를 인생의 도구로서 위치시켜 놓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발에는 자신들의 모국어 (일본어와 한국어) 가 그려져 있고, 이는 연구협력자들의 특징인 정체성의 초석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5 가족을 사례를 들어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한정적인 한 예에 불과할 수 있으나 유학과 이동의 경험을 지닌 부모의 정체성이 두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는 공존 정체성이라는 것과 다각적 또는 가족구성원의 스토리와 언어 초상화에서 다면적으로 고찰한 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차후 양적인 조사와 함께, 한일국제결혼가정에 의한 언어 사용과 가족 구성원의 정체성에 대해 다방면으로 조사를 실시해 나가고자 한다.

付記 : 본 논문은 2022 년도 박사학위 논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다.

参考文献

<日本語>

稲垣みどり (2015) 『『移動する女性』の『複言語育児』在アイルランドの在留邦人の母親達のライフストーリーより』『リテラシーズ』(19), pp.1-17.くろしお出版

岩崎典子 (2013) 「留学前後の日本語学習者の日本観・日本語観：複文化復言語使用者として」『比較日本学教育研究センター研究年報』(9), pp.175-182.

岩崎典子 (2018) 『『ハーフ』の学生の日本留学一言語ポートレートが示すアイデンティティ変容とライフストーリー』川上郁雄・三宅和子・岩崎典子 (編) 『移動とことば』 pp.16-18.くろしお出版

岩崎典子 (2020) 「SLAにおける留学研究の変遷と展望—さまざまな留学環境とそれぞれの行為主体性 (agency)」『第二言語としての日本語の習得研究』(23), pp.102-123.

- 岩崎典子 (2021) 「言語ポートレートから見る多層アイデンティティ『アイデンティティ戦争』から複言語使用者へ」三宅和子・新井保裕 (編) 『モビリティとことばをめぐる挑戦』 pp.245-267. かつじ書房
- 岩崎典子 (2022) 「『留学』研究からことばの学習と使用を考えるー移動を重ねるスロバキア出身 Denisa の言語レパートリー」川上郁雄・三宅和子・岩崎典子 (編) 『移動とことば2』 pp.97-126. くろしお出版
- 岡本夏木 (1985) 『ことばと発達』 岩波新書
- 川上郁雄 (2013) 「『移動する子ども』という記憶とカーことばとアイデンティティ」くろしお出版
- 川上郁雄・三宅和子・岩崎典子 (編) (2018) 『移動とことば』 くろしお出版
- 川上郁雄・三宅和子・岩崎典子 (編) (2022) 『移動とことば2』 くろしお出版
- 川上郁雄 (2023) 「未来へ繋ぐ日本語教育: 『移動する子ども』という経験と記憶の視点から」 Journal CAJLE, Vol 24 pp.1-21.
- 川上郁雄 (2023) 「『移動する子ども』学から『継承語教育』を考える」『日本語学研究』第75輯、pp.31-49.
- 桜井厚 (2002) 「ライフストーリーインタビューをはじめ」桜井厚・小林多寿子 (編) 『ライフストーリー・インタビュー質的研究入門』 pp.11-61. せりか書房
- 坂本光代 (2014a) 「文化間移動と子どもの言語発達」宮崎幸江 (編) (2014) 『日本に住む多文化の子どもと教育ーことばと文化のはざままでいきる』 pp.3-13. 上智大学出版
- 坂本光代 (2014b) 「多文化共生の実現にむけて」宮崎幸江 (編) (2014) 『日本に住む多文化の子どもと教育ーことばと文化のはざままでいきる』 pp.149-164. 上智大学出版
- 坂本光代・宮崎幸江 (2014) 「日本に住む多文化家庭のバイリンガリズム」宮崎幸江 (編) (2014) 『日本に住む多文化の子どもと教育ーことばと文化のはざままでいきる』 pp.17-46. 上智大学出版
- 佐々木てる (2006) 『日本の国籍制度とコリア系日本人』 明石書店
- 志水宏吉・清水睦美 (2001) 『ニューカマーと教育ー学校文化とエスニシティの葛藤を巡って』 明石書店
- 鈴木一代 (2008) 「『国際児』の文化的アイデンティティ形成ーインドネシアの日系国際児の事例を中心にー」異文化間教育(19)、 pp.42-52.
- 鈴木一代 (2012) 『成人期の文化間移動と文化的アイデンティティ』 ナカニシヤ出版
- 鈴木一代 (2013) 「グローバル化社会と多元的アイデンティティ: 国際結婚者と国際児の場合」『埼玉学園大学紀要』(人間学部篇) 13、 pp.97-106.
- 鈴木一代 (2014) 「バイカルチュラル環境と文化的アイデンティティ: 日独国際児の場合」『埼玉学園大学紀要』(人間学部篇) 14、 pp.15-28.
- 鈴木一代 (2016) 「多文化環境と精神的健康: 文化的アイデンティティと『居場所』を中心に」『埼玉学園大学紀要』(人間学部篇) 16、 pp.43-52.
- 鈴木一代 (2017) 「海外在住国際結婚家庭における言語・文化の継承: 孫(日系三世)は日本語・日本文化を継承できるか?」『埼玉学園大学紀要』(人間学部篇) 17、 pp. 65-74.
- 鈴木一代 (2018) 「グローバル社会における海外在住国際結婚家族のアイデンティティ形成と『居場所』: ありのままの自分を求めて」『埼玉学園大学紀要』(人間学部篇)、 18、

- pp. 59-70.
- 鈴木一代 (2019) 「日系国際児 (ハーフ) から日系三世 (クォーター) への言語・文化の継承: インドネシア在住の事例から」『埼玉学園大学紀要』(人間学部篇) 19, pp.77-90.
- 関口知子 (2003) 『在日日系ブラジル人の子どもたち異文化間に育つ子どものアイデンティティ形成』明石書店
- 田中克彦 (1996) 『名前と人間』岩波書店
- 高橋朋子 (2013) 『『移動する子ども』のことばと心を育むために親ができること』川上郁雄 (編) 『『移動する子ども』という記憶とカーことばとアイデンティティ』 pp.335-346. くろしお出版
- 竹下修子 (2000) 『国際結婚の社会学』学文社
- トムソン木下千尋 (2021) 「継承語から繫生語へ—日本と繋がる子どもたちのことばを考える」『ジャーナル「移動する子どもたち」—ことばの教育を創発する』12, pp.2-23.
- 中家晶瑛 (2022) 「親子間使用言語を日本語とするニューカマーの親子から見えることばの実践への意味付けと親子関係—ことば観との関わりに着目して—」『ジャーナル「移動する子どもたち」—ことばの教育を創発する』13号, pp.126-161.
- 中川 明 (1998) 『マイノリティの子どもたち』明石書店
- 中島和子 (2016) 『完全改訂版 バイリンガル教育の方法』アルク
- 福本拓 (2016) 「現代日本における国籍とエスニシティの揺動—その空間的側面に着目して—」『地理区間』9-3, pp.267-283.
- ホール、スチュアート (1990) 「文化的アイデンティティとディアスポラ」『現代思想』(4月臨時増刊号) 42-5, pp.90-103 (小笠原博毅訳)
- 松岡里奈ほか (2022) 「学校選択調査から見えた Family Language Policy に影響する要因の—考察—タイに住む日本人家族と泰日国際家族はなぜ日本語を学習言語としたのか—」『ジャーナル「移動する子どもたち」—ことばの教育を創発する』13号, pp.162-181.
- 三宅和子 (2018) 「国際結婚家庭2世代の『移動』と『選択』」川上郁雄・三宅和子・岩崎典子(編) 『移動とことば』 pp.126-148.くろしお出版
- 三宅和子 (2021a) 「モビリティ、21世紀に問われている社会言語学の課題」三宅和子・新井保裕(編著) 『モビリティとことばの挑戦—社会言語学の新たな「移動」』 pp.3-27.ひつじ書房
- 三宅和子 (2021b) 「モビリティと周縁性」三宅和子・新井保裕 (編著) 『モビリティとことばの挑戦—社会言語学の新たな「移動」』 pp.28-29.ひつじ書房
- 三宅和子 (2022) 「名前をめぐるアイデンティティ交渉」川上郁雄・三宅和子・岩崎典子 (編) 『移動とことば 2』 pp.16-44.くろしお出版
- 三好 登 (2023) 「留学生の留学先決定と文化・社会・経済資本との関連性—日本の大学を事例として—」『大学入試研究ジャーナル』第33号, pp41-47.
- 李 光鍋 (2016) 「ディアスポラの母国メディア利用—バンクーバー在住韓国系ディアスポラの事例—」『慶応義塾大学法学会』89(2), pp.213-237.
- リアンテルミハタノ (2009) 『マイノリティの名前はどのように扱われているのか—日本の公立学校におけるニューカマーの場合』ひつじ書房

<日本語以外>

Skutnabb-Kangas, T. (1981). *Bilingualism or not: The education of minorities* (L. Malmberg & D. Crane, Trans.). Clevedon, England: Multilingual Matters.

Wilson, S. (2020). *Family language policy: Children's perspectives*. London, UK: Palgrave Macmillan.

김경희 외 (2016) 『보육학개론』 창지사

박소라 (2008) 『이민 2 세 청소년의 미디어이용, 정체성과 문화적응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2(6), pp.237-257.